

“여사원 공채 계획이 따로 없습니다” “각 계열회사에서 요구가 있을 때 각 학교로 추천 의뢰해서 수시로 1~2명씩 뽑고 있습니다”

### 수시로 1~2명 뽑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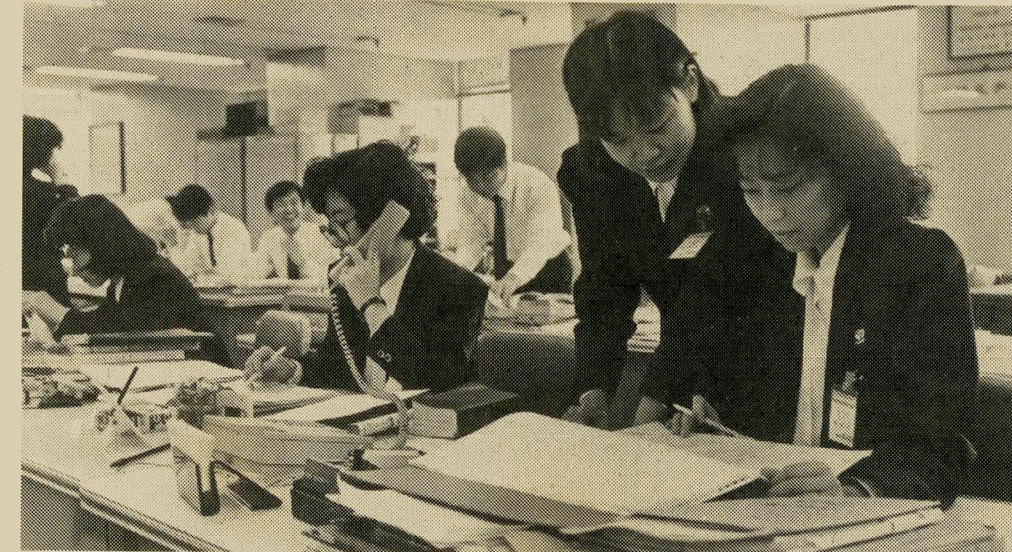
주식회사 쌍용, 벽산, 삼미, 삼양사, 선경, 진로, 코오롱, 금호, 한진 등 대기업 인사과와 기획조정실에 대졸여직원 채용 여부를 물어보면 딱딱한 목소리의 책임자에게서 쉽게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듣는다.

지난 4월1일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동법 제2장 제6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 시행 뒤 처음으로 맞는 본격적인 취업 시기임에도 특별히 대졸 여성 사원 채용에서 달라진 것이 눈에 띄이지 않는다.

87년 5만7천8백40명의 여자 대학졸업생 가운데 27.4%만이 취업을 했을 뿐(문교부 통계)이며 올해도 6만여 명의 여자 대학을 졸업하는 여성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지만 이들을 맞는 문은 굳게 닫혀 있다.

### 공채도 추천있어야

엄연히 채용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각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우리 회사에는 대졸 여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각 계열회사에서 여사원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지 않아서” 뽑을 계획이 없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여사원을 일반사원 모집과 함께 공채한다고 밝힌 곳은 현재 대우, 현대, 삼성, 효성, 한국화약



# 좁은문 뚫어도 버텨내기 힘들다

## 대졸 취업 전문직 여성, 남성중심 기업구조 못견뎌

하고 있다”고 고충을 말한다. 지난해까지 추천 의뢰만으로 여사원을 뽑았던 삼성은 올해부터는 공개채용 방침을 세우고 원서를 교부하고 있다.

여성 대졸 사원을 따로 공채하는 특이한 경우는 대우다.

85년 처음 대졸 여사원 공채를 시작, 2백명 모집에 5천3백18명의 원서를 접수, 26대1의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 여대생 취업난을 실감하게 해 주었던 대우는 올해도 남자 사원 채용 뒤인 11월 중순께 여사원을 따로 공개채용할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고 나서 처음 맞는 사원 모집철이지만 대졸여성들의 취업문은 여전히 좁다.

를 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뚜렷한 성과가 없다.

대우 기획조정실 김학수 인력과장은 “대기업의 구조 자체가 남자 위주이기 때문에 여사원들이 영업이나 관리직 등에는 적응하기 힘든 것 같다”면서 생산 현장 근무를 1년 만에 포기하는 여사원들을 자주 본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여성 인력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과 여성 자신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남자만큼 일못해”

채용의 난관을 뚫고 입사한 여사원들은 임금 차이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대우는 초임이 남자 39만8천원·여자 37만8천원, 두산은 남자 39만1천원·여자 34만3천2백원, 롯데는 남자 39만원·여자 34만원으로 공식적으로 초임부터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여자가 남자만큼 일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고만 밝히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대졸 여사원은 사원이 10만이 넘는 현대, 대우, 삼성 등의 경우 2백~3백명선, 1만명 내외의 기업에는 10~5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책임자 위치에는 거의 없어 현대에 차장 2명 과장 5명, 대우에 과장 2명이 있을 뿐이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 대기업에 일단 들어가도 여성들이 살아남기는 힘들다. 81년 대우와 83년 삼성에서 시도했던 기존 여사원 채용자들은 거의 탈락되었다.

해마다 30~40%의 여성들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직 여사원이 남성 위주의 대기업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등이다.

11월에 2천~3천명의 사원을 뽑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10~1백명 정도의 대졸 여사원 채용 계획을 세워 놓고 공채를 하고 있지만 실제 교수 추천 의뢰와 공채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는 대졸 남녀 2천8백명을 뽑을 예정인데, 이 가운데 1백명 정도가 여사원이다. 이들 여사원은 주로 영업·관리직보다는 전산 프로그램, 건축 설계, 번역, 사보 편집, 사서, 디자인 분야에 집중 배치된다.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사원들은 대부분 사보 편집이나 연구직에 편중되어 있다.

현대 종합기획실의 홍성원 차장은 “여성들이 지방근무나 해외 장기근무, 현장근무 등을 꺼리기 때문에 내근 직종으로 주로 배치

계획이어서 여대생들의 문의가 기획조정실로 쇄도하고 있다.

다른 기업과 달리 전산프로그램, 디자인 등뿐 아니라 해외영업, 생산관리직에도 의욕있는 여성을 배치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방근무나 해외영업에 인사 배치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첫해...취업난 여전 초임부터 차별, 책임자 자리는 바늘구멍